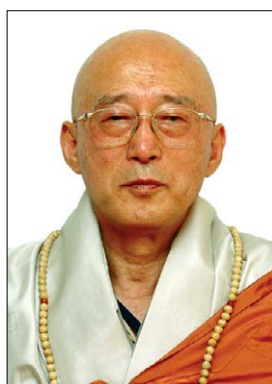


우리 종단을 말한다 | 대한불교관음종

포교원장 범명 스님

### “자비실천 활발한 법화 신앙의 본산”

전통불교의 원류를 좇아 법종을 이어온 태허 스님은 해방 후, 동족상잔의 불안한 사회를 부처님 가르침으로 교화하고자 1965년 불입종을 창종했다. 지금의 대한불교관음종(종정 죽산·1998년 법인 등록 및 종단명 변경)의 전신이다.



관음종 포교원장 범명 스님.

관음종은 법화사상을 정혜(定慧)·겸수(兼修)로써 체득해, 관음보살의 제세원력을 구현하는 것을 종지로 전법도생(傳法度生) 건성성불(見性成佛)을 지향하고 있다. 총본산 낙산 묘각사(서울 종로구 승인동)는 1930년 5월 창건 이래 현재까지 <법화경>을 중심으로 수행과 대중불교 운동을 지향해, 법화 신앙의 중심사찰로 자리 잡았다. 풍수지리 상 '서늘이 편안하고 시린생활에 안녕을 가져온다'는 자리에 위치한 묘각사는 서울시민의 안심입경(安心立命)의 귀의처로 청정

이웃에 대한 자비실천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각 지역의 산하 사찰에서는 약 30여 년간 교정 시설에서 수용자 교화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고, 국제적으로 쓰나미와 중국 지진 피해가 발생했을 때 종도들의 힘을 모아 성금 지원에 앞장서기도 했다. 또한 한국불교를 널리 알리기 위해 일본 8대 종단의 사찰을 순

### ‘법화경’ 중심 수행으로 법화 신앙의 중심 불교문화대학 설립해 승단·재가불자 교육

법신의 구원불을 봉안하고 관음보살을 모시고 있다. 또한 이북 동포의 인성과 남북통일을 염원하기 위해 석굴암의 모든 불상을 복원으로 향하게 하고 있다.

본 종단은 삼보정재를 보존·발전시키고자 1500여 스님과 70만 여명의 신도가 수행에 매진하고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알리고자 사회·교육사업 및 국제교류에도 힘쓰고 있음은 물론이다. 2000년부터 서울복지원을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4곳과 노인문화센터를 통해 보살사상을 실천하고 있다. 또한 서울불교문화대학을 설립해 승단과 재가불자들에게 대한 교육에 나서고 있다.

관음종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제반 문제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종단차원에서 소외된

방하는 등 일본 불교계와 30여 년째 교류하고 있으며, 미국에도 한국불교를 널리 알리기 위한 불사를 준비중이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2006년 3월에는 미해병대 사령부 영내에서 '6.25 참전 용사와 국제 분쟁에 희생당한 영가를 위한 합동 천도제'를 봉행했다.

앞으로 관음종은 서울불교문화대학의 발전과 학문적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소를 설립하고, 법화사상을 더욱 널리 알리고자 개산조 태허 스님의 유문집도 발간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들을 위한 템플스테이를 활성화해 불교의 위대한 사상과 정서를 널리 알리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총무원 (02)763-0054

정리=김진성 기자

## 연예인 불자들 ‘마음 내려놓기’

### 관음종 낙산 묘각사에서 16·17일 1박2일간 진행

“화려한 조명과 인기 속에 공허하고 우울해 하는 연예인들을 위로하고 마음으로 다시 태어나 국민 앞에 더 이상 이 같은 일이 없기를 발원하는 소중한 모임이고자 합니다.”

국민배우 故 최진실 씨와 故 안재환 씨의 안타까운 자살소식으로 연예계가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한국 불교문화예술인연합회(회장 전원주) 연예인 불자들이 ‘내 마음 내려놓기’라는 주제로 1박2일 템플스테이를 가졌다.

관음종 총본산 묘각사(주지 흥파)에서 10월 16·17일 진행된 마음 다스리기 수련을 통해 연예인 불자들은 “모든 행복과 불행이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을 반듯하게 알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집합임을 찾고자 사찰에서의 하룻밤을 결정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16일 오후 묘각사 대웅전에서 열린 입재사에서 관음종 총무원장 흥파 스님은 법문을 통해 “우울한 감정은 도미노처럼 확산이 빠릅니다. 더욱이 맑은 백역에 따라 급격히 감정을 다스리며 살아야 하는 연예인들에게는 그 사제가 쉽게 표면화되고 빠르게 전염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생사의 비밀을 말씀하셨 습니다. 마지막 생각이 바로 다음



10월 16일 서울 묘각사에서 전원주·선우유녀(앞줄 왼쪽부터) 등 연예인 불자 40여 명이 관음종 총무원장 흥파 스님의 법문에 앞서 삼배를 하고 있다.

생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자살은 결코 고통의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극단적인 삶의 마감이 다음 생의 인(因)이 된다는 것을 유념하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로 보고 재정비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라고 말했다.

불교계 국제개발기구(NGO) 지구촌공생회(대표 월주) 홍보대사로서도 활동하고 있는 전원주 회장은 “마음 나누기” 프로그램에서 “연예인이라는 직업이야말로 동체대비(同體大悲)의 실상을 보여주는 삶입니다. 그러한 보살의 마음으로 대자비

심을 일으켜 하나의 마음이 되고 일 상에서 실천해 간다면 어떠한 역경에도 물들지 않는 청아한 연꽃이 되어 저마다의 향기를 전하게 될 것입니다”라며 동료들에게 당부의 마음을 전했다.

전원주씨를 비롯해 선우유녀·여운계씨 등 인기 연예인 불자와 관계자 40여 명은 참선수행과 108배 정진·새벽예불·요가·다도 등의 시간을 가지며 연예인 스스로는 물론 모든 국민들에게 맑은 마음을 전달하기 위한 제도약의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기연속 기자 omflower@buddhapia.com

## 부천남부경찰서 금강·보살수계법회

부천남부경찰서(서장 최경식) 경승위원회(위원장 성인 스님)는 10월 15일 경찰서 법당에서 ‘대한불교조계종 경승단 부천남부경찰서 금강·보살 수계대법회’를 봉행했다.



10월 15일 부천 남부경찰서에서 열린 금강·보살수계법회 후 가진 기념촬영.

이날 수계식은 계증사로 성인 스님(대덕사), 진문 스님(자비사), 불광 스님(구월사), 평신 스님(무애암), 혜장 스님(죽림사), 혜명 스님(지장암), 보청 스님(성불사이) 참석했다. 덕만 스님(연흥사)의 집전과 부천남부경찰서 법우회 회장 김성수

경위의 사회로 부천남부경찰서 최경식 서장과 문화부 부천시 경승협의회장, 김진배 부천시 경승협의회 부회장 등 불자 100여명이 동참했다. 김성우 기자

## 세계최대 다포양식 미륵보전 상량

### 천태종 대광사, 사대부중 2천여명과 봉행



10월 7일 봉행된 분당 대광사 미륵보전 상량식.

천태종 분당 대광사(주지 월산)는 10월 7일 세계최대 다포양식으로 조성되는 미륵보전 상량식을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 총무원장 정산 스님, 종의회의장 도정 스님, 감사원장 춘광 스님, 이대업 성남시장, 신영수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분회 강원도지사부인 등 사대부중 2천여 명이 동참했다.

대광사 미륵전은 무형문화재 제74호인 신승수 대목장이 도편수를 맡아 불사를 진행하고 있다. 연면적 661㎡

(200평)에 아파트 10층 높이인 33m 규모. 전통목조건축양식인 다포집(기둥머리 위, 기둥과 기둥 사이에 공간 포(空間)라는 두공을 배치한 형태)이며, 국보 제62호인 전북 금산사 미륵전과 같이 외부의 모습은 3층 전각이나 내부부는 단층이지만 금산사와의 5포인데 반해 대광사는 외9포로 건설된다. 목재는 11트럭으로 200대 분량이 소요됐다.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대조사전과도 같은 형태다. 김성우 기자

## 조동종 연수교육 및 사미·구족계 수계식



대한불교조동종 제11차 연수교육 및 사미계·구족계 수계법회가 10월 9~11일 충북 괴산 다보사 다보수련원에서 승정원장 달계 스님을 비롯해 총무원장 덕우 스님, 승정위원장 법공 스님, 교육원장 광혜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했다.

달계 스님은 법어에서 “조동종의 자부심을 가지고 목조선의 일인자가

되어 어디를 가나 당당한 위풍오묘 조동종의 기풍을 실현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덕우 스님은 인사말에서 “우리 종단의 지도자를 양성하고 나아가 목조선풍을 이 시대의 불교 주역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 하겠다”고 말했다.

청운 경남남부지사장

## 국내 최초일본 고관화 원주 고관화박물관서 전시

태고종 원주 명주사 고관화박물관(관장 한선화)은 10월 19일부터 31일까지 ‘일본 고관화의 세계’를 주제로 특별전을 개최한다.

2008년 복원기금지원사업의 지원으로 열리는 전시회에는 조선 통신사 행렬을 기록한 ‘조선인행 열차제(1764년)’를 비롯해, ‘목암열반도’, ‘관음시현도’, ‘4국8불관화’ 등 불교관화와 ‘금강경변상도’, ‘인교경변상도’ 등 불교관련 목판본 10여 점을 선보인다.

한선화 관장은 “고관화박물관이 소장한 400여 점의 일본 판화 가운데 100여 점을 얻었다”며, “국내에서는 최초로 일본 판화의 모든 것을 감상할 기회”라 말했다. 조동성·김진성 기자

# 공

# 고

대한불교원효종 서울고등법원 제 25민사부 2007라1580 임시종정성인 김유철(향운) 2008년 8월 25일 임시종정으로 선임되었으므로 종헌 제12장 종회 제 59조 교구종무원을 편성합니다. 전 종도들께서는 아래의 일정에 맞추어 해당되는 교구와 사찰 일정을 확인하여 빠짐없이 참석바랍니다.

- 20일 월요일 - 부산 금수사 (부산 동구 초량동 843번지) 오후 4시  
울산 용주사 (울산 북구 매곡1동 47번지) 오전 10시
- 21일 화요일 - 경남 감로사 (경남 고성군 고성읍 이당리 999) 오전 10시  
전라도 불교사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학동 999) 오후 3시
- 22일 수요일 - 대전충남 법성사 (대전광역시 동구 효동 246-5) 오후 12시
- 23일 목요일 - 서울경기 진산사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방성2리 80-3) 오후 3시
- 24일 금요일 - 강원도 영금사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서곡3리 702번지) 오전 10시  
충북 보덕사 (충북 음성군 원남면 덕정리 1번지) 오후 4시
- 27일 월요일 - 제주도 보문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176-1번지)
- 28일 화요일 - 비구니회 추원사(경북 경주시 황용동 78-1번지) 오후 4시
- 30일 목요일 - 경북(북) 정토사 (경북 김천시 구성면 흥평1동 780번지) 오후 12시  
경북(남) 복원사 (경북 경주시 현곡면 내태리 875번지) 오후 4시

### 대한불교원효종 임시종정 향운

## 내 몸 내가 고치는 한국전통따주기 강좌(스님반) 안내

### 1. 한국전통따주기란

우리 민족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간 따주기로써 예를 들면, 급제 시 임지손뼉 뿌리 밑을 바늘로 따주기 하면 신기하게도 금방 내려갑니다. 온 몸을 이렇게 따주기로 낮게 하는 민족 고유의 슬기로운 자신 건강관리 비법입니다.

### 2. 신비의 전통따주기 특징

- 가. 신경을 자극하고, 탁한 피를 맑게 하며, 부족한 피를 생성 시킵니다.
- 나. 월 1회 병 예방 따주기로 병 예방 및 건강관리 합니다.
- 다. 뼈 부러진 곳과 수술한 부위를 제외하곤 모두 적용됩니다. (상기병, 혈압, 당뇨, 편도, 콧머리 통증, 수질증, 탈모, 기억감퇴, 이명, 측누중, 감기, 안면풍, 여드름, 입술 부르름, 버짐, 백반, 목, 어깨, 가슴 통증, 협심증, 신경성, 편마중, 정신착란, 우울증, 공포증, 심장혈자, 스트레스, 적병(화병), 간장, 심장, 위장, 폐장, 신장, 담, 명문, 소장, 비장, 대장, 방광이 나쁜 자, 자손 얻기, 검은 피부, 위경련(제함), 허리, 다리, 좌골, 관절염, 변비, 냉병, 생리불순, 지질, 정력증강(희춘), 병 예방 따주기, 담배 끊기, 술 줄이기, 神氣 있는 자, 엘보우, 병명이 나오지 않는 자, 피가 부족한 자, 갑자가 기력이 저하된 자, 하지정맥 등)
- 라. 따주기를 접한 날부터 몸이 낫기 시작 합니다.
- 마. 비장만 따도 내 병의 반을 낮게 할 수 있습니다.
- 바. 평생 잊지 않는 위치 알기에 10분이면 충분 합니다.
- 사. 간단하고,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 3. 따주기 활용

신도포교/ 자신 건강관리/ 따주기 사회봉사/ 건강 북 짓기 / 생활 속 비상 따주기 (풍, 급제, 기절, 경기 등)

### 4. 강좌 세부내용 (한반 수강으로 이룬, 실습 모두 학습)

- 가. 1일차 (토요일 09:00 ~ 22:00)
  - ◆ 우주의 기운
  - ◆ 인연과 탄생, 명부전, 병
  - ◆ 전통따주기 개요, 인체의 구조
  - ◆ 5형으로 본 인체

- ◆ 전통따주기, 각 따주기
- ◆ 신비한 비장따주기
- ◆ 마음의 세계(마음 10단계)
- ◆ 피가 생성되는 기초따주기
- ◆ 병 예방 비법
- ◆ 실습

### 나. 2일차 (일요일 09:00 ~ 13:00)

- ◆ 신비한 수치의 비밀
- ◆ 단번에 아는 남·녀 공합 비법
- ◆ 대운, 연운, 월운, 일운 비법
- ◆ 수상 및 관상 보강
- ◆ 성명 분석 및 작명 비법
- ◆ 종합, 질의 및 답변, 지도사 수료증 수여

### 4. 강좌 일정 및 장소

가. 강사 : 한국전통따주기연구원장 (교수, 공학박사)

나. 일정 및 수강료 (스님반)

- (1)일 정 : 2008. 11. 8(토) 오전 9시부터 ~ 11. 9(일) 오후 1시까지 (11월 7일 금요일 저녁까지 도착)
- (2)수강료 : 34만원(숙황토방 숙박 및 자연식단 제공, 따주기 도구 및 비법교재 등 일체 제공)
- \* 강의개시 3일전까지 선착순 예약자에 한해 수강(선착순 12명)
- 다. 장소 : 충남청양교육장
- 라. 준비물 : 편한 복장 및 개인 세면도구
- \* 문의처 : 041)944-2237, 010-3234-2237 (www.ddajuki.re.kr)

### 한국전통따주기연구원